

研究論文

일제하 《조선일보》의 성병관련 담론 연구*

김 미 영**

-
- | | |
|---|--------------------------|
| I. 서론: 《조선일보》, 여성 그리고 성병 | VI. 결론: 여성의 몸에 새긴 前 前 근대 |
| II. 《조선일보》에 수록된 다양한 성병담론 | 적 의식의 횡포와 근대적 의학체계의 힘 |
| III. ‘문명병’, ‘화류병’, ‘유전병’이라는 이름 | <참고문헌> |
| IV. 감염경로는 방치 약물치료만 강조하는 성병담론 | <국문요약> |
| V. 부재(不在)하는 성병예방법과 피임법, 부재(不在)하는 여권(女權) | |
-

I. 서론: 《조선일보》, 여성, 그리고 성병

본 연구는 일제하 《조선일보》(1920-1940)에 수록된 성병관련 담론들을 분석하여 식민지 기층여성들의 현실을 고찰하고, 그것에 나타난 한국 근대화 과정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방 전까지 간행된 《조선일보》의 기사 가운데 ‘전염병’, ‘성병’, ‘화류병’, ‘부인병’, ‘자궁병’, ‘매독’, ‘임질’, ‘연성하감’, ‘피임’, ‘불임’을 주제로 검색한 기사들을 대상으로, 기사제목의 주제별 정량분석과 기사의 내용분석을 할 것이다. 분석대상이 일간지 기사이므로, 검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KRF-2004-037-A00152).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현대문학전공(peace539@hanmail.net).

1) 본 논문에서는 광고를 제외한 《조선일보》의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순 사건보도 기사로부터 신문사의 정론성이 드러나는 특집기사나 연재기사, 사설까지를 포괄하였다 후자는 민족주

색어는 전문성보다는 대중적으로 성병관련 기사임을 알 수 있는 개념어들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병은 성과 관련된 질병을 총칭한다 일제 강점기 하 한반도에서 성병은 전염병의 대명사로 화류병이라 일컬어졌고, 부인병, 자궁병의 주요 하위항목이었다.²⁾ 일제하 가장 두드러진 성병은 임질과 매독, 연성하감이었다고, 당시 여성의 성병은 불임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또, 가임연령의 여성감염자는 성병의 태아감염을 우려해 일간지 의학란에 피임법을 자주 질문하고 있다. 위의 검색어들이 성병관련 기사를 취택함에 있어서 충분히 보편적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이상과 같은 당시의 정황들에 의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검색어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필자가 지속적으로 행해 온 일제하 일간지의 여성관련 담론연구의 부분작업이다.³⁾ 이제껏 식민지 시기 여성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女子界》, 《新女性》, 《新家庭》 등, 여성잡지를 대상으로 논구되었다.⁴⁾ 이는 1920~30년대 여

의적 색채를 지닌 당시 언론사의 인식이 드러나지만, 전자의 경우, 당대의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당대 전반적인 여성에 대한 인식은 결국 이 모두를 아우를 때 가능할 것이다. 일간지에서 기사의 종류별로 담론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논문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미영, 「1920~30년대 지배담론의 여성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일보>에 게재된 여성 관련 보도성 단신기사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18호(한국역사민속학회, 2004a) 참조할 것.

- 2) 일제시대에는 성병이란 용어보다 화류병이란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전인류의 흥망성쇠가 이 한가지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 화류병 즉, 성병이었다(「전인류를 좀먹어가는 화류병의 박멸책」, 《동아일보》, 1939, 4. 10/3 면). 가끔 여성의 생식기에 일어나는 질병을 총칭하여 ‘자궁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오늘날 ‘부인병’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부인병은 냉증, 대하증, 월경통, 골반염, 질염 등 세균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과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의 암과 불임, 각종 호르몬 이상과 월경불순, 유방암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김민수(외),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 1329쪽). 반면, 일제시대의 ‘자궁병’은 냉대하증과 성병을 주로 일컫는다(「婦人の帶下症과月經不順은 엇더한毒을끼치나」, 《新女性》, 1931년 12월호, 74쪽). 그러나 ‘자궁병’이란 용어도 당시에 ‘화류병’이란 용어에 비해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일제시대에는 성병을 총칭하는 개념은 화류병이었다.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성병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화류병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 3) 필자의 일제하 일간지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 김미영, 「일제하 <조선일보>의 <가담부인>欄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6집(한국현대문학학회, 2004b); 김미영 앞의 논문(2004a); 김미영, 「1920년대 계몽적 남성 지식인의 여성관련 담론 연구: <동아일보>에 게재된 여성 관련 사설 및 연재기사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4집(한국국학진흥원, 2004c).
- 4) 구체적인 예로는 이옥진, 「여성잡지를 통해 본 여권신장: 1906년부터 1929년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1980); 김정란, 「일제하 한국여성체육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1994); 조은·윤택림,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 근대성과 여성성에 대한 식민담론의 재조명」,

성담론에서 여성지가 차지하는 선구자적 역할 때문일 것이다. 여성지에 수록된 담론들은 근대식 교육을 받은 인텔리에 의해 구성된, 그 시대 당위론적 인식의 최고치를 보여준다. 이 밖에도 일제 강점기 하에 간행된 여성작가들의 문학작품에 반영된 여성인식의 변화들을 짚어내는 연구들도 있다.⁵⁾ 여성작가들 역시 당대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여성지의 주 필진이었기에, 이들의 문학에 나타난 의식상의 변화들 역시 지식인의 것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일간지에 수록된 다양한 형식의 여성관련 담론이 분석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일간지의 사건보도성 기사는 당대의 현상적 현실을 직접 반영한다. 일간지의 담론은 여전히 전근대(前近代)를 살던 당시 기층여성들⁶⁾의 일상적 생활을 당대성과 현장성의 차원에서 전한다. 일간지의 사설이나 특집 연재기사는 신문사의 정론성(政論性)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 사이를 오가는 다양한 논객들의 인식의 편차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란 측면에서 일간지는 사회의 각 부문들과 집단들의 숨겨진 이해와 갈등을 반영한다. 일간지는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두드러지는 근대화의 시발기 같은 때에 특히 그 역할이 부각된다. 언론의 역할이 정치적·사회적 개혁에 있어서 중차대하기 때문이다.⁷⁾ 식민지시대 한반도에서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함께 민족의 공기(公器)이자 언로(言路)의 한 축이었다. 이상의 사실에서 구체적인 민족의 실상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일간지 분석은 매우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제8집(광복50주년 기념사업회 1995); 전은정 「일제하·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 서강대 석사논문(2000); 김미영,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2003); 조혜현, 「한일 근대 <신여성> 비교 연구: 여성지 《신여자》와 《청담》을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논문(2004) 등이 있다.

- 5) 김은희(외), 『신여성을 만나다: 근대 초기 한·중·일 여성소설 읽기』(새미, 2004); 이민경 「근대 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의 부정적 유형」, 동아대 석사논문(2005); 권영아, 「근대문학 초기 여성소설 연구」, 울산대 석사논문(1999); 황수진, 「한국 근대소설 속에 나타난 신여성상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1999).
- 6) 여기서 기층여성이란 개념은 유산자계층의 여성에 대한 상대개념이다. 근대식 교육 유무에 따라 신여성과 구여성의 구분이 가능하듯이, 유산자와 무산자의 구분에 의한 유산자계층의 여성과 일반 기층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해 당시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에 일부 상류층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부인들이나 기생, 창기 등도 기층여성에 속한다고 본다.
- 7) 정홍자,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1986), 2 쪽

본 연구는 일제하 《조선일보》에 수록된 담론 가운데 성병과 관련된 담론을 분석한다. 성병이란 화두를 선택한 이유는 성병이 성별 대립의 가장 직접적 국면에서의 문제상황을 반영하거나, 성병은 일제 강점기 내내 결핵 다음으로 중요한(?) 민족적 질병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치하 한반도의 구성원을 괴롭힌 3대 고질병은 결핵, 성병, 소화기병이었다.⁸⁾ 조선총독부 의원관제에 의해 1910년에 설립된 총독부의원은 구 대한의원을 계승한 병원으로서 조선의 가장 권위있는 의료중추기관이었는데, 이 병원은 한방을 배제하고 서양의학 위주로 진료를 하였다. 1914년부터 1926년까지 이 병원의 진료환자수(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를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비뇨생식기병 및 화류병, 즉 성병이 약 20.0%, 소화기병이 약 19.5%,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질병이 약 18.7%였다.⁹⁾ 당시 한반도에서 성병은 오늘날의 에이즈처럼,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난치병이었다. 1930년대에 특히 전국적으로 성병감염자가 늘어나, 일제말기에는 성병환자의 수가 약 34만에 이른다.¹⁰⁾ 이는 1930년대에 결핵환자가 50~60만 환자였고, 한 해에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5~6만이었다는 것¹¹⁾과 비교된다. 일제시대 내내 한민족의 건강과 가정을 위협한 성병은¹²⁾ 당사자 개인에게는 ‘일생일대의 병 이자’, ‘대대손손에 미치는 악성의 전염병’이며, 민족적으로는 ‘사회악(社會惡)의 대문제(大問題)’이자, ‘문화(文化)의 암흑면(暗黒面)’으로 이해되었다.¹³⁾

1920년 전후(前後) 한반도에서 신여성들의 자유연애론, 여성교육론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그에 따른 당위론적 주장들이 그야말로 봇물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여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실생활의 가장 민감하고도 내밀스런 부분이자, 실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서 받아들여지고 실천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사회적 의식의 실제

8) 張文卿, 「봄철婦人衛生」, 《女性》, 1937년 4월호, 80-81쪽.

9) 대한결핵협회(편), 『한국결핵사』(대한결핵협회 1998), 194 쪽

10) 《동아일보》, 1939년 4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일본인과 조선인을 합쳐 일반인 가운데 매독 환자가 58,729명, 연성하감(軟性下疳) 환자가 98,056명, 임질 환자가 177,168명이며, 화류계 여성들 가운데 매독, 임질, 연성하감 등 성병에 걸린 사람은 9,340명이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343,293명에 이른다. 「전인류를 좀먹어가는 화류병의 박멸책」, 《동아일보》 1939. 4. 10/3 면

11) 이정우, 「폐결핵강좌」, 『요양춘』, 제13 집(1939), 6 쪽

12) 「大衆의 疾病은 結核, 消化器病, 性病」, 《조선일보》, 1938. 3. 5/조간 2면.

13) 「時評: 花柳病者問題」, 《조선일보》, 1926. 8. 29/석간 1면.

적 변화를 살핌에 있어 개인적 재생산의 요소들의 집합체인 일상생활사¹⁴⁾에 직결된 담론의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사회의 실질적 변화는 역사적이고도 구체적인 개체들의 재생산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민족적 전환기에 성병과 관련된 담론의 향방은 조선인의 위생과 안위뿐 아니라, 질병에 관한 총독부나 경찰국의 행정적 관리체제와 근대적 의료체제가 조선에 안착해 가는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병문제는 제국 군대의 전력문제와도 연관된다. 태아감염부분에 오면, 조선의 미래와도 얽힌다

질환으로서의 성병은 조선에 공창제를 도입한 일제국주의와 한반도 내부의 가부장제적 인습이 개인의 육체에 새긴 욕망의 변질과정에서의 파생물이다. 성병의 치료는 근대적 과학과 문명의 힘이 개체의 몸에 체험적으로 각인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성병과 그 치료를 둘러싼 담론들은 근대화와 식민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적 질곡의 접점에 위치하는, 가장 직설적이고도 일상적인 성별 인식의 이해를 반영한다. 따라서 일간지의 성병담론 고찰은 성별화된 근대화과정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일 계기가 될 수 있다.

II. 《조선일보》에 수록된 다양한 성병담론

일제 강점기 하 성병은¹⁵⁾ 근치법(根治法)이 개발되지 않은 악성의 전염병이었다.¹⁶⁾ 일제는 한반도에서의 성병 창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1908년에 창기단속령을 선포한 바 있다.¹⁷⁾ 일제는 창기나 기생 등에 대해 촉진(觸診)에 의한 성병정기검진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병이 날로 확산되자, 일제는 1934년에는 ‘화류병 예방령’을 공포하였다.¹⁸⁾ 경찰서, 병원, 학교 등이 주체가 되

14) Heller, 『일상생활의 사회학(Sociology of Everyday life)』, 1975. p. 415; 로라 보본스, 「의미의 추구인가 의미의 부정인가」,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외),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 『일상생활의 사회학』(한울아카데미, 1994), 141쪽에서 재인용

15) 「大衆의 疾病은 結核, 消化器病, 性病」, 《조선일보》 1938. 3. 5/ 조간 2면

16) 「可驚할 最近學生界風紀-某專門學校入學試驗體格考查人員中 性病患者가 約一割 中等學校時代の 不品行이 權病의 主因, 子弟訓育에 重大問題」, 《조선일보》, 1938. 3. 5/ 조간 2면

17) 山下英愛,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1991), 33쪽

어 ‘성병예방 좌담회’¹⁹⁾와 ‘성병대책좌담회’²⁰⁾를 개최하였고, 경찰서는 성병 관련 영화상영회를 열었고,²¹⁾ ‘성병강화(性病講話)’라는 ‘팸플렛’도 제작·배포하였으며,²²⁾ 거리에 ‘포스타’도 붙였다.²³⁾ 경찰국 위생과가 주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성병검사도 실시하였고, 성병전문 병원도 개설하였다.²⁴⁾ 성병예방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펼친 것은 총독부와 경찰국만이 아니었다. 체신국에서는 경성을 비롯한 전(全)조선의 11개 주요도시에 간이보험(簡易保險)든 자들을 위한 건강상담소를 설치하고 성병전문의를 두어 성병에 대한 진단과 상담을 실시하였다.

1936~1937년 사이에 이 건강상담소를 이용한 사람은 22,000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성병환자는 10~13% 정도에 이르렀다.²⁵⁾ 모 전문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검진 결과, 입학생의 일할 이상이 성병보유자였고, 조선인 창기의 오할 이상, 일본인 창기의 사할 이상이 성병에 걸려있다는 보도도 있다.²⁶⁾ 1937년 경기도 위생과의 통계에 따르면, 대체로 이 시기 한반도 전체 인구에서 1,000명당 평균 2명 정도가 성병환자였고, 그 종류는 임질이 절대다수였고, 매독, 연성하감, 기타 순이었다.²⁷⁾ 일제 말기에는 창녀의 약 9할, 남자의 8할 이상이 성병보유자라는 통계보도도 있을 정도이다.²⁸⁾

1920년 창간부터 1940년 폐간까지 《조선일보》에 게재된 성병관련 기사는 총 165건이다.²⁹⁾ 《조선일보》의 성병관련 기사는 20여년의 간행기간에 비해 많은

18) 《조선일보》, 1935. 7. 19.

19) 《조선일보》, 1940. 5. 9.

20) 《조선일보》, 1939. 4. 12.

21) 《조선일보》, 1937. 3. 13.

22) 《조선일보》, 1931. 3. 26.

23) 《조선일보》, 1935. 9. 14.

24) 「性病患者에 福音! 진찰과 왕진무료: 담·혈액 등도 무료검사」, 《조선일보》, 1931. 3. 26/석간 22면.

25) 「대중의 고질은 결핵·소화기병·성병!」, 《조선일보》, 1938. 3. 5/조간 2면

26) 「시들은 籠中鳥-性病患者五割-朝鮮人罹病率이 尤甚」, 《조선일보》, 1938. 1. 17/석간 22면

27) 「可驚할 最近學生界風紀-某專門學校入學試驗體格考查人員中 性病患者가 約一割 中等學校時代의 不品行이 罹病의 主因, 子弟訓育에 重大問題」, 《조선일보》, 1938. 3. 5/조간 2면

28) 「時評-花柳病者問題」, 《조선일보》, 1926. 8. 29/석간 1면.

29) 《조선일보》에 수록된 민족 최대의 질병이었던 결핵관련 기사는 426회에 이른다. 또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한 잡지 《朝光》, 1937년 4월호에는 조선의사협회와 조광 편집부의 공동편집으로 「결핵예방독본」이란 제목 아래 결핵예방특집을 94쪽에 걸쳐 게재하기도 하였다. 「결핵예방독본」, 《

양은 아니랄 수 있다. 하지만 165 건이라는 수는 유교적 문화 속에 놓여 있던 당시 현실을 고려할 때, 성병관련 글로서는 적다고 할 수 없는 양이다³⁰⁾ 동시대에 간행된 수다한 여성지가 성병에 관해 언급 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비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여성지 담론에는 ‘성병’이란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여성지에 실린 성병과 유관한 담론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지 말지의 여부를 논한 것이나,³¹⁾ 기자의 창녀촌 탐방기³²⁾ 정도가 고작이다. 화류병 문제는 주로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하는 일간지에서 취급하였다. 이는 여학생이나 지식인 여성보다는 기층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담론의 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에 수록된 성병관련 담론을 유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일제하 《조선일보》의 성병관련 담론의 유형별 분포

	성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성병감염자의 실태보고	성병 예방법(질의 응답포함)	성병 치료법(치료약 광고포함)	성병확산을 막기 위한 총독부와 경찰국의 활동보고	기타(성병으로 인한 자살·이혼 등 사건보도)	총계
개재일수(일)	19	18	13	76	10	29	165
백분율(%)	11.5	10.9	7.9	46.1	6.0	17.6	100.0

<표 1>은 《조선일보》의 성병담론은 치료법에 관한 것이 많고, 예방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보여준다.³³⁾ 치료법담론의 후반부는 대부분 성병치료제

朝光》, 1937.4. 255~349쪽. 결핵에 관한 신문의 기사는 이미 1910년부터 1920년까지 《매일신보》에 14회 실렸고, 1920년부터 1940년까지 《동아일보》에는 211 회,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만 5년간 《매일신보》에는 85회가 실렸다. 대한결핵협회 편, 앞의 책 276 쪽

30) 《조선일보》에 수록된 성병관련 기사는 성병 일반에 관한 것 41건, 임질에 관한 것 53건, 매독에 관한 것 71건, 피임에 관한 것 6건 등인데, 이는 동시대 《동아일보》의 성병관련 기사 78건에 비해 많은 양이다.

31) 「性教育實施方針如何」, 《新家庭》, 1933. 11, 32~43쪽.

32) 「人肉의 市, 公娼屈 訪問記」, 《新家庭》, 1934. 7, 64~70 쪽

33) 이는 《동아일보》의 것과 비교 가능하다.

에 관한 광고로 이어져 있는 점이 특이하다. <표 1>에서 성병을 둘러싼 사건사고를 다룬 기타항목이 17.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당시 성병으로 인한 이혼과 가정파탄, 자살이나 범죄가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³⁴⁾

《조선일보》의 성병담론은 여성을 독자층으로 하는 조간 5면의 「家庭婦人欄」과 석간의 文化·家庭란(23~25면)에 주로 게재되어 있다. 성병관련 기사는 주로 국한문체가 아닌, 한글전용체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삽화에는 여성이 등장한다. 예컨대, 여성의 탈모사진을 곁들여 매독이 여성탈모의 원인이라거나, 성병이 심해지면 정신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성 기사도 독자를 여성으로 상정하여 구술된다.³⁵⁾ 가정부인이 잠꼬대를 해도 그 원인이 매독일 수 있다거나,³⁶⁾ 불결한 요강과 목욕탕에 다녀온 칠팔 세 소녀들은 매독에 걸리기 쉬우니 주의하라고 계몽한다.³⁷⁾ 성병은 키스로도 전염되며, 특정 부위의 ‘몸키스’는 매독의 전염가능성이 높아 키

<표 2> 일제하 《동아일보》의 성병관련 담론의 주제별 유형>

	성병이란 무엇인가?	성병감염자의 실태보고	성병 예방법 (질의응답)	성병치료 (약광고)	성병확산저지노력(총독부·경찰국의 활동)	기타(성병으로 인한 자살·이혼 등 사건보도+성교육논란)	총계
게재일수	4	37	5	3	18	11(3+8)	78
백분율 (%)	5.1	47.4	6.4	3.8	23.1	14.1	99.9

- 34) 이러한 기사의 예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梅毒으로 悲觀自殺 양젓물 먹고 인척」, 《조선일보》, 1927. 7. 27/조간 2면; 「매독 傳染시켜주고 아내를 팔아먹은 자」, 《조선일보》, 1927. 4. 4/ 조간 2면; 「남자방탕과 가정비극: 남편으로부터 傳染된 梅毒 비판 음독한 艾妻, 몸쓸 병은 점점 더 깊어 약값도 없어서(양양군 손양면)」, 《조선일보》, 1926. 3. 14/ 석간 2면; 「慘憺한 愛慾地獄 매독 않으며 姦夫찾는 아내 보다못해서 목을매여죽여」, 《조선일보》, 1926. 2. 22/ 조간 2면; 「권총으로 殺妻, 매독환자라고 離婚코자 한 처를 쏘았다(충남 진천군)」, 《조선일보》, 1921. 4. 22/ 석간 3면; 「화류병의 전염을 이유로 단발美妓를 경찰에 고발 고소당한 妓生편에서는 남자를 걸어 강제로 단발케 했다고 경찰에 맞고소, 昔日의 情男情女 경찰서에서 相見」, 《조선일보》, 1928. 11. 25/조간 2면
- 35) 「家庭-“享樂” 다음레물은 무서운정신사병 후천적원인은 알콜중독과매독 봄이면 병도 싹이튼다」, 《조선일보》, 1935. 4. 12/ 석간 23면
- 36) 「부인 梅毒症勢로도났하나는 잠꼬대증세 낮발을가는것도맛찬가지 어쩌케고칠가」, 《조선일보》 1931. 6. 16~17/석간 25면(상,하로 연재).
- 37) 「목욕하다가도 임질에 걸려, 각별히 주의할 소녀들」, 《조선일보》, 1939. 4. 5/ 석간 24면

스 후 양치질을 꼭 하라는 기사에는 서양여성과 하트를 그린 그림이 곁들여 있다.³⁸⁾ 또 매독균은 더러운 혈액 중에서 생활하기가 싫증이 나서 청정무구한 혈액을 좋아하여 가정부인개로 쉽게 전염된다고 설명한다. 동경제대 대학병원 산과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매독에 걸린 백인 중 팔십구인의 부인들이 불임, 조산, 유산을 체험하였으며, 매독환자가 낳은 아이는 태어나도 ‘유전매독환자 이므로 자라서 진성 임파선염은 물론, 소화불량, 빈혈, 전간 등에 걸리기 쉽고, 사춘기 이후에는 “白痴智力障碍”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 “殺人 등과 가튼 것을 우습게 이는 所謂 變質者”가 되기도 쉽다며 여성에게 성병감염에 유의하라고 계몽한다.³⁹⁾ “男子의 八割以上이 花柳病에 걸려있는 오늘날에 잇서서 女子는 果然 結婚할 義務가 잇슬가”는 의문이 여성에 의해 제기되고, 「讀者 質疑欄이 門을 두다리라」는 코너에는 수시로 성병에 걸린 익명의 독자가 성병치료법을 질문한다.⁴⁰⁾ 「가정의학 性病일까요」같은 코너에서도 21세인 처녀가 남자와 성교(性交)를 한 후 그 남자로부터 매독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감염이 되었는지 걱정이 된다고 질문하는데,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의심되면 혈액검사를 받아보라고 간단히 답한다.⁴¹⁾ 문답식 기사들은 당시 기층민들이 성병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공포를 느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한결같은 답변은 근대식 의료기관인 병원에 가보라는 것이다. 또, 양양군 손양면의 어느 부인은 전남편으로부터 매독을 얻어 돈 10원을 간신히 만들어 606주사를 한 대 맞고도 차도가 없자, 양젓물을 먹고 음독자살을 시도한 것을 식모가 발견하여 미움으로 살려내었다거나,⁴²⁾ 충남 진천군 월촌면에서 결혼한 지 20일 만에 남편이 매독환자임을 알게 된 처가 본가로 도망가자 남편이 처를 찾아가서 ‘육혈포’로 쏘아 살인 미수죄로 징역 칠년을 언도받고

38) 「가정-킷쓰와 병의 전염-킷쓰야야도병에따러던염이된고만됩니다, 《조선일보》, 1932. 6. 19/주간 4면.

39) 「早産流産의 八割은 무서운 梅毒이 原因-內服藥의 選定과 患者의 心得, 《조선일보》, 1935. 1. 25/주간 2면.

40) 《조선일보》, 1940. 6. 5/석간 13면

41) 《조선일보》, 1936. 4. 3/석간 24면

42) 「男便으로부터 傳染된 梅毒-悲觀飲毒한 艾毒-몸슬병은 점점 더해가고 치료에 쓸 약값도 업서서 남자방탕과 家庭悲劇, 《조선일보》, 1926. 3. 14/석간 2면.

상고하였다는⁴³⁾ 사건보도성 기사는 성병확산과 치료의 어려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이 기층여성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사실들은 《조선일보》의 성병담론이 여성과 특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게재지면의 위치나 한글사용 여성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 사건보도, 여성이 등장하는 삽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일보》는 성병에 관한 계도의 대상으로 여성을 상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의 성병담론은 당시 대중의 성병에 대한 기초지식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보제공보다는 치료제 광고나, 근대식 의료기관에의 의존을 추천하고 있다. 사건보도성 기사는 성병의 만연으로 인한 피해가 조선의 가정을 위협하고, 특히 기층여성에게 피해가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일보》의 성병담론은 암암리에 조선의 기층여성을 전통과 불결, 성병과 밀접한 존재로 이미지를 묶어감으로써 성병의 확산과 치료의 책임을 여성에게 은연중 전가하고, 기층여성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서구적 의학의 외피를 쓴 제국주의와 모성론에 뿌리를 둔 가부장제적 의식의 합작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III. ‘문명병,’ ‘화류병,’ ‘유전병’이라는 이름

1920~30년대 한반도에서 성병은 ‘문명병(文明病),’ ‘화류병(花柳病),’ ‘유전병’으로 불렸다.⁴⁴⁾ 「性病의 “食餌”는 女給보다는 妓生 健康診斷에 나타난 이 現狀」은 성병의 매개자가 모던한 ‘여급(女給)’보다 ‘창기(娼妓)’라고 밝히나, 성병의 진원지인 신정(新町) 등의 유곽문화가 일본을 통해 수입·관리되었고,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 역시 식자층이 중심이었기 때문에⁴⁵⁾ 성병은 ‘문명병’으로 인식되었다.⁴⁶⁾

43) 「권총으로 살처-매독환자라고 리혼코자한 처를 쇼았다, 《조선일보》, 1921. 4. 22/석간 3면.

44) 「時評-花柳病者問題」, 《조선일보》, 1926. 8. 29/석간 1면.

45) 당시 십팔구세의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인 전문대생의 일할이 성병보유자였다. 「可驚할 最近學生界風紀-某專門學校入學試驗體格考查人員中 性病患者가 約一割 中等學校時代의 不品行이 罹病의 主因, 子弟訓育에 重大問題」, 《조선일보》, 1938. 3. 5/조간 2면

46) 「時評-花柳病者 問題」는 성병이 문명병의 일종인 이유를 독일과 러시아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성병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까지 동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져 발

화류계 출입시 성병감염을 조심하라는 기사에는 하이칼라 남성의 얼굴이 삽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를 입증한다.⁴⁷⁾ 「주의할 新町의 花柳病·梅毒에 걸린 자가 십이명시오 임질환자는 백여명이나 된다」에서는 성병의 대량확산이 일제에 의해 도입된 공창제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⁴⁸⁾ “생활법의 번잡함이 금일의 소위 문화의 일 표징인데, 향락의 풍부와 욕망의 왕성이 또한 문화정도를 정하는 일표준이 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인류의 번뇌를 피하고 적극적으로 인류가 문화에 의하여 얻은 향락과 자위의 준향락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蠶食하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병의 만연을 불러왔다는 것이다.⁴⁹⁾

성병이 서구적 문명과 자본주의 체제의 유입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와 연관된 일종의 문명병이라는 인식보다는 화류병이라는 인식의 연원은 더 오래고 깊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매독(syphilis)이 등장하는데, 이는 서역에서 들어온 화류병으로 인식되고 있다.⁵⁰⁾ 성병은 16세기 초 서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호색에 의한 악성의 음창’이었다. 서역 문명의 땅에서 질병의 원인인 세균이 침범하여 성병이 도래했다는 메타포는 성병을 외부로부터 침범해온 악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

생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26. 8. 29/석간 1면.

47) 「남편에게 매독기운이잇으면 부인에게꼭전염되야 무서운해독을지순게주게됩니다, 《조선일보》, 1938. 2. 20/조간 4면.

48) 《조선일보》, 1936. 10. 15/조간 2면 《조선일보》, 1923. 1. 30/ 석간3 면

49) 《조선일보》, 1921. 12. 16.

50) 三木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와 金斗鍾의 『韓國醫學史』를 인용한 이재선의 성병의 전래를 설명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독(syphilis)은 성병 즉 화류병의 일종이다 조선의 전통 의서에서는 창(瘡)·천포창(天疱瘡) 또는 양매창(楊梅瘡)이라 일컬어지며 호색에 의한 악성의 음창으로 규정한다. 이수광(李睟光)이 쓴 『지봉유설(芝峰類說)』 권17에 의하면, 그 전과경로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本國醫方曰 天疱瘡 正德年後 始自中朝傳染而來 中朝亦舊無此疾 出自西域 則病之出後世者 亦多矣’ 중종 원년~16년(1506~1521) 이후 처음 중국에서 전염되어 들어 왔으며 중국에서도 이전에는 이런 질환이 없었으므로, 이는 서역(광의의 서양)에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치포방(治泡方)」, 「동의보감(東醫寶鑑)」, 「산림경제(山林經濟)」와 같은 전통 의학 서책에는 병인과 증상 및 요법이 다루어져 있다. 그 병인으로서 숭음호색(崇飲好色) 또는 남녀의 음와(淫蕩)와 음사(淫邪) 등 불결하고 문란스러운 성적교접을 규정함으로써 역시 상스러운 것으로서 그리고 다른 곳으로부터 옮겨 온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재선, 「<탁류>: 성병의 은유적 도상학」 『시학과 언어학』, 제7호(2004), 244~245쪽. 이재선은 그의 글에서 “중종 원년~16년(1500~1521)”로 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확인한 결과 중종의 즉위 년도는 1506년이었다. 필자는 이를 일종의 오기로 보아, 인용문에서는 정정한 연도를 적었다.

흔히 결핵이 19세기의 낭만성과 천재성의 한 은유라면, 성병은 20세기의 자본주의적 탐진과 부패상의 한 상징으로 인식된다.⁵¹⁾ 오랫동안 성병은 “악을 지칭하는 은유”로서, “소름끼치는 병”이며, “위신을 떨어뜨리는 상스러운 질병”이자,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이 내린 재해”이며, “성적 문란과 부도덕의 징표”로 이해되었다.⁵²⁾ 일제시대 매독은 다행히 치료제인 606호 살바르산(salvarsan)이 1930년대에 보급되면서, 결핵만큼 무서운 질병은 아니게 되었다.⁵³⁾ 그러나 임질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병은 여전히 “영혼의 질병”이며 “가족의 질병”이자, “국가의 질병”으로서, 한마디로 “질병 그 이상”이었다. 성병을 화류병이라 부른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인데, 이는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그랬다.⁵⁴⁾ 성병을 화류병이라 칭함은 이 질병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화류계’의 이미지 속에 가두는 효과가 있다. 《조선일보》에 수록된 성병관련 기사 및 담론 가운데 1면에 실린 것은 단 4건인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제목에 ‘화류병(花柳病)’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⁵⁵⁾ 성병을 ‘화류병’이라 칭함으로써 화류계와 무관한 감염자도 성적 방종의 이미지를 나누어 갖게 되어 불명예와 수치감이 배가된다. 이는 감염자가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못

51) 수잔 손탁은 『은유로서의 질병(Illness as Metaphors)』에서 결핵과 암이 19세기와 20세기의 상징적인 질병이며 특히 매독은 세기말의 상징적인 질병이라고 본다. Showalter, Elaine, “Syphilis, Sexuality and the Fiction of the Fin de siècle,” *Reading Fin de siècle Fiction*(Lyn Pykett: Longman, 1996), p. 166; 이재선, 위의 논문, 243쪽에서 재인용.

52) 이재선, 위의 논문, 243~244쪽.

53) 1930년대 조선에는 5~60만의 결핵환자가 있었고, 해마다 5~6만의 사람이 결핵으로 죽어갔다. 이 경우, 「폐결핵강좌1」, 『요양춘』, 제13집(1939), 6쪽, 이재선, 위의 논문, 246쪽에서 재인용.

54) 《조선일보》에는 가끔씩 동경발 기사가 게재되었다. 성병에 관한 일본 쪽의 분위기는 한반도와 달랐다. 우선 일본은 성병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갔다. 「花柳病豫防案 委員會 可決」, 《조선일보》, 1927. 3. 20/조간 1면. 일본은 화류병을 유포하는 자는 창기를 돈으로 산 자인 남성도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 본인이 화류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결혼하여 배우자에게 감염시킨 자도 엄중 처벌할 것임을 공표하고 있다. 「花柳病豫防案 修正希望」, 《조선일보》, 1927. 3. 17/조간 1면. 또한 독일은 세계대전 때 팔십만의 군사가 화류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아 패배한 예가 제시되고, 러시아는 화류병을 옮기는 자를 징역 육개월 이하에 처하는 등, 성병퇴치를 위한 법제화를 실시함이 소개된다. 「時評 花柳病者問題」, 《조선일보》, 1926. 8. 29/석간 1면.

55) 구체적으로는 「花柳病 豫防案 委員會 加結」, 동경, 《조선일보》, 1927. 3. 20; 「花柳病 豫防案 수정 희망」, 동경, 《조선일보》, 1927. 3. 17; 「花柳病者 問題」, 《조선일보》, 1926. 8. 29; 「花柳病者 激增」, 《조선일보》, 1930. 12. 2 이 있다.

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화류병’이란 용어는 당시 사람들이 성병을 단순한 질병이 아닌, 風氣와 결합된 문제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질병 획득의 접촉국면만을 부각함으로써 ‘화류병’이란 용어는 불행하게 이 병을 떠안게 된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된다.

화류병으로서의 성병은 매춘⁵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화 과정에서 관리, 교원, 군인 등 독신자가 내한했을 때, 이들의 성욕처리를 위해 유곽설치를 공인하였다. 원래 일본에는 노예적 창기를 유곽지역에만 거주하게 하는 공창⁵⁷⁾제도가 있었고, 이는 여러 차례 개선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공창제는 일본에서 개선되기 이전의 형태가 도입되어, 조선의 가부장제적 가족구도와 여성들의 열악한 취업조건과 결합되었다.⁵⁸⁾ 일제는 1916년 전국적인 통일법규를 발포하여 공장체를 전조선으로 확장한다. 이 제도는 1947년 11월 <공창제도 폐지령>에 의해 형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일제에 의해 유지·관리된다.⁵⁹⁾ 제도의 형식적인 폐지에도 불구하고 매매음은 역사의 변화 속에서 이후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꾸준히 존속되었다. 한마디로 일제에 의해 도입된 공창제는 오랜 한국매춘문화의 시발이라 할 수 있다.⁶⁰⁾ 조선의 공창제에서 독특한 것은 ‘전차금’이라는 제도였다.⁶¹⁾ 조

56) 매춘이란 일반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전 등을 얻고자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강정숙 「대한제국·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제도의 도입」, 『서울학 연구』, 제1권 1호(1998), 197쪽

57) ‘公娼’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매음을 공인받은 여성을 지칭하며, 그 공창의 영업형태를 규정짓고 있는 관례를 공창제도라고 한다. 근대적인 공창제의 시작은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다. 근대 공창제는 군대 위안과 성병 관리를 기층으로 한 국가 관리 성매매 체계이며 근대 국가 건설, 특히 강력한 군대 건설의 이익과 결합해 탄생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기를 검진해서 무해함이 증명된 여성을 창부로 등록시키는데, 남성 특히 장병을 성병에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창제는 19세기 중반에는 유럽 제국에 파급되어, 1860년대에는 ‘전염병법’의 형태로 영국에 도입되어 선진 자본주의 제국의 식민지 확대과정에서 식민지에 전파되어 제국주의의 이익을 유지,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공창제가 근대국가 건설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전개에 기여한 제도임은 일본의 예가 입증한다. 후지메 유키, 김경자·윤경원 역, 『성의 역사학』(삼인 2004), 393쪽

58) 강정숙, 앞의 논문, 232쪽

59) 山下英愛, 앞의 논문, 33쪽

60) 매춘의 역사는 원래 영장류의 암컷 또는 젊은 수컷이 먹이를 얻었을 때 그 담례로 혹은 상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번벌로, 보니 벌로, 서석연·박종만(역), 「매춘의 기원」, 『매춘의 역사』(가치 1992), 23쪽

선 창기의 대부분은 가난 때문에 이 길에 접어들었는데,⁶²⁾ 창기가 될 때 전차금을 인정한 것은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여성매매를 합법화한 계기였다.⁶³⁾ 일제의 수탈로 인한 식민지의 경제적 붕괴와 매매에 의한 매춘여성의 공급은 조선의 광범한 매춘지대 형성의 물적 토대가 된다.⁶⁴⁾ 1930년대 한반도에서 기생으로 팔려가는 딸의 서사는 채만식의 세태풍자소설인 <탁류>(《조선일보》, 1937~8년 연재)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1935~8년 무렵 한반도를 풍미한 영화 <심청전>의 공전의 히트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가능하였다.⁶⁵⁾

성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조선통감부는 1906년 조선인 매음부⁶⁶⁾에 대한 성병 검사를 실시하였다.⁶⁷⁾ 일제가 공창에 대해 성병검진을 실시한 목적은 「防諱防犯講演 性病對策座談」에 잘 나타나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장기전에 돌입한 성전의 총후국민으로서 일선장병에 대하여 “후고의 염여가 업시하기 위하여 이다 경찰서마다 ‘훈수살 訓授室’에서 접객업자 전부를 소집하여 방첩방공방법에 대한 시국강연과 함께 화류병과 전염병 예방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⁶⁸⁾ 거기서 일본인 창

61) 山下英愛, 앞의 논문, 56쪽

62) 위의 논문, 124쪽

63) 강정숙, 앞의 논문, 232쪽

64) 《조선일보》에 1937년 10월 12일부터 1938년 5월 17일까지 198회에 걸쳐 연재된 채만식의 소설 <탁류>는 ‘흐리고 탁한 물줄기 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1930년대 군산이라는 특정 공간을 떠다니는 세균같은 인물군의 생태와 탐욕의 전염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재선, 앞의 논문, 246쪽.

65) 1930년대 중반 조선에서 가장 유행한 이야기 형태는 <홍길동전>과 <심청전>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양반에 항거한 의적의 이야기와 아버(국가)를 위해 팔려가는 딸 이야기는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대대적으로 유행하였다. 두 작품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단성사 등에서 상영되어 1935년부터 1938년에 이르기까지 히트를 쳤다. 이 두 작품은 하와이에도 수출이 되어 한인이주민들에게 상영되기도 하였다(『深靑傳, 海外進出, 明春 一月에 ‘하와이 에 진출 조선영화로는 嚆矢, 《조선일보》, 1938. 11. 19; 『義賊一代記 洪吉童傳, 庶子の 怨恨에서 兩班에 抗拒한 洪吉童』와 『大孝와 犧牲의 精神, 深靑傳의 價値』, 《조선일보》, 1935. 1. 1에 동시에 게재). <심청전>은 멀리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의 한인이민자들에게도 알려졌으며, 하와이 한인이민자 사회에서는 1934년 <홍길동전>과 <심청전>을 토대로 한 연극 <로터스 버드>가 공연되기도 하였다. 조규익, 『로터스 버드 Lotus Bud』(월인, 2004), 참조

66) 조선의 공창의 수는 『조선회보』의 「매소부건강진단의 상황」(1916. 6)의 157쪽에 실린 표에 의하면, 1915년 현재 전국적으로 5,068명이었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진단소는 전국적으로 65개소가 설치되었다. 공창의 수와 건강진단소는 193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67) 山下英愛, 앞의 논문, 45쪽

68) 《조선일보》 1939. 4. 12/ 조간3 면

기와 조선인 창기에 대한 정기성병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공창제 하에서의 창기의 성병검사는 조선의 어린 창기들의 반발과 저항,⁶⁹⁾ 검사기술의 미흡함, 포주의 이익을 위해 치료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짐 등으로 실체는 큰 효과가 없었다.⁷⁰⁾ 창기에 대한 정기성병검사는 성병의 감염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창기의 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었다. 공창제 실시 이후 조선의 매음부수는 더욱 증가하였고, 성병검진 후 성병의 확산도 심해졌다.⁷¹⁾ 오히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의 공표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안심감’ 때문에 공창제의 존속은 더욱 공고해졌다 결국 성병검사 제도는 공창제의 존속을 위한 안전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²⁾

어쨌든 공창제의 실시⁷³⁾는 상품화폐경제의 확산과 더불어 한반도에 성병을 만연시킨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조선일보》에는 연일 남편으로부터 성병이 옮겨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완치가 어렵다는 사실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실린다.⁷⁴⁾ 성병이 발견되면, 초기부터 숨기지 말고 치료에 힘쓰라는 기사들 또한 ‘가정란 과 ‘가정의학란 에 연일 게재된다⁷⁵⁾ 특히 「남편에게 매독기운이

69) 山下英愛, 앞의 논문, 62 쪽

70) 위의 논문, 61 쪽

71) 위의 논문, 66 쪽

72) 위의 논문, 7~8 쪽 26 쪽

73) 조선에서의 공창제는 일본군대의 성적 도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창안되어 조선의 기층여성 을 피지배민족으로서 인권과 성을 유린한, 이중적 착취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일제가 조선의 공창제를 관리한 방식이 여성들이 매음을 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매음(賈淫)을 하는 남성과 매음부를 고용하고 매매음업을 하는 포주들을 단속하는 것과 무관하였음이 이를 입증한다. 위의 논문, 26 쪽

74) 다음의 글들이 그러한 예이다. 「젊은사나이 性病을操心하라 男便한테서惡疾傳染되어 그안해가飲毒自殺, 《조선일보》, 1936. 9. 18/조간 2면; 「性病걸린 男子와 同棲할 수 업소-女子가離婚請求訴, 《조선일보》, 1935. 5. 31/조간 2면, 「男便으로부터 傳染된 梅毒 悲觀 飲毒한 艾毒 몸술 병은 점점 더해가고 치료에 쓸 약감도 업서서, 男子放蕩과 家庭悲劇, 《조선일보》, 1926. 3. 14/석간 2면; 「권총으로 殺妻-매독환자라고 리혼 코자한 처를 쇼았다, 《조선일보》, 1921. 4. 22/석간 3면; 「부모의별거 명령 젊은부부 죽음으로 대답, 매독이 있어도 별거는 못하겠다 열차에서 뛰어내려, 《조선일보》, 1934. 9. 5/석간 22면.

75) 다음의 글들이 그러한 예이다. 「가정을망치는성병에대하여 부끄럼업시속히치료할일- 城大皮膚秘尿科 鄭權場, 《조선일보》, 1937. 7. 23/석간 24 면 「讀者質問欄 家庭醫學 淋疾 淋疾後遺症, 《조선일보》, 1940. 4. 10/석간13 면 「임질 남편에게 임질기운이 잇스면 반듯이 부인께 전염됩니다, 《조선일보》, 1937. 11. 26/석간 25; 「가정의학 임신시에 임질, 《조선일보》, 1935. 9. 10/석간 23 면, 「여러가지 화류병은 가정과 사회를 망칩니다 가정부인들은 남편의 화류병을 미리

잇스면 부인에게 꼭 전염되야 무서운 해독을 자손께 주게됩니다」는 기사는 하이칼라 남편이 조선인 부인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는 삽화가 곁들여 있다. 남편에게 임질 기운이 있으면 반드시 여성도 임질에 걸릴 것임으로 바로 치료에 임하라는 기사에는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여성의 울부짖는 모습이 삽화로 곁들여 있다.⁷⁶⁾ 당시 창기는 5일에 한번씩 의사에게 성병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경기도 경찰부 조사에 따르면 ‘신명조합(新町組合)’에 소속된 창기 3,156명 중, 매독환자가 1명, 임질환자가 43명, 하감환자가 5명이다. 순전히 조선창기로 조직된 한성조합(漢城組合)은 총수가 1,879명인데, 그 중 매독은 1명, 임질은 69명, 하감은 20명인 바 이곳을 출입하는 자는 조심하라고 당부한다.⁷⁷⁾ 남성들에게 성병의 진원지인 유곽출입을 자제하거나 금하라는 글은 없고, 출입은 하되, 성병감염에 유의하라고 당부하는 글만 있는 것은 특징적이다.⁷⁸⁾

성병담론에서 여성에게 특히 정신적인 부담감을 안겨준 부분은 ‘유전상 대목이다.’⁷⁹⁾ 임신부가 성병감염자이면, 출산과정에서 유아에게 성병이 감염될 수도 있음⁸⁰⁾이 ‘유전성’으로 와전되어, ‘성병=유전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임질에 걸린

예방하야 큰해를 피하시오-임질의 증상과 경과(3)-(4)의학박사 오원석, 《조선일보》, 1932. 12. 11/조간 5면 「남편에게 매독기운이 잇스면 부인에게 꼭 전염되야 무서운 해독을 자손께 주게됩니다」, 《조선일보》, 1938. 2. 20/조간 4면 「可恐할 梅毒 初期에 加療하라 梅毒은 子子孫孫에게 遺傳한다」, 《조선일보》, 1937. 10. 30/석간 23면

76) 「임질 남편에게 임질기운이 잇스면 반드시 부인에게 전염됩니다」, 《조선일보》, 1937. 11. 26/석간 25면.
 77) 「주의할 新町의 花柳病-梅毒에 걸린 자가 십이명이오 임질환자는 백여명이나 된다」, 《조선일보》, 1923. 1. 30/석간 3면
 78) 「여러가지 화류병은 가정과 사회를 망칩니다-가정부인들은 남편의 화류병을 미리 예방하야 큰해를 피하시오-임질의 증상과 경과(3)-(4)의학박사 오원석, 《조선일보》, 1932. 12. 11/조간 5면
 79) 이러한 담론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너무마르거나너무살찌도애기를뭇낫케돼오-성병도잇나업나 진단을바더볼것」, 《조선일보》, 1940. 5. 8/조간 3면 「婦人病 問答 問 임질로 하여 생긴부인병에는 얼마동안이나 약을 쓰고 치료하면 근치되니까?-답 이 치료법을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근치하고 귀여운 애기도 나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1938. 11. 6/조간 2면 「婦人病·不妊症에 命之母」, 《조선일보》, 1938. 11. 6/조간 2면 부인병약 광고 「가정의학 임신시에 임질」, 《조선일보》, 1935. 9. 10/석간 23면 「가정의학 임질노씨 아들을 못나」, 《조선일보》, 1935. 9. 10/석간 23면 「가정의학-어머니의 매독은 자손에게 유전된다-일가를 망치는 매독을 곳치라」, 《조선일보》, 1939. 2. 24; 2. 28/조간 2면 2회 연재 「可恐할 梅毒 初期에 加療하라 梅毒은 子子孫孫에게 遺傳한다」, 《조선일보》, 1937. 10. 30/석간 23면 「早産流産의 八割은 무서운 梅毒이 原因-內服藥의 選定과 患者의 心得」, 《조선일보》, 1935. 1. 25/조간 2면

임산부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질문하자 의사는 밑물을 자주하고 국부가 습하지 않도록 아연화 가루를 뿌리고, 출산 후 임질전문 치료를 받으라고 권한다 남편도 함께 치료받고, 특히 출산시 아이의 눈에 임질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다. 당뇨와 임질을 앓는 삼십 사세된 남성이 정충의 절멸을 염려하는 이야기도 있다.⁸¹⁾ 「가정의학: 임질노씨 아들을 못나」는 특히 임질에 걸리면 아들을 못 낳는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일제하 여성담론 가운데 교육담론과 더불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은 의료 및 위생담론이다. 그러나 기실 그 수다한 의료 및 위생담론에도 불구하고 성병에 대한 의학적이고 과학적 견지의 탐구와 여성의 성욕에 대한 인정, 구체적인 성병예방법과 피임법의 소개 등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새로운 이·미용법과 화장법, 의식주에서의 청결유지와 육아에 관한 것, 성병의 예방과 근치에 전력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이들은 채워져 있다. 성병의 확산을 막자는 담론에는 귀엽고 건강한 아기를 동반한 가정부인의 얼굴이 삽화로 등장해, 모름지기 부인들은 성병의 전염성이 자손에까지 미치니, 남편의 화류계 출입을 막고 성병예방에 힘쓰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도 전한다. 남성들의 유곽출입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지 않고, 피임법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에, 이와 같은 성병담론은 여성에게 사회와 국가의 안위를 떠넘기는 논리라 할 수 있다. 당시는 피임법이 개발되지도, 대중에게 교육되지도 않았다⁸²⁾ ‘화류병’이란 용어가 여성감염자에게 ‘불결(不潔)함’과 ‘수치심’을 배가한다면, ‘유전상’ 논의는 모성론과 맞물려 감염여성에게 ‘천형(天刑)’의 이미지를 덧찍는다.⁸³⁾

80) 「시들은 籠中鳥 性病患者五割 朝鮮人罹病率이 尤甚, 《조선일보》, 1938. 1. 17/ 석간 22 면에서 ‘떨병’이라고도 불리운 淋疾 또는 淋病은 그 膿膿이 눈에 들어가면 농루알 膿漏眼을 나타내기도 하고, 무른 瘻양의 농으로 인해 다발성의 瘻양이 생기기도 한다. 유전병이란 이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81) 이 무렵 발표된 김동인의 단편소설 <발가락이 닳았다>, 《東光》(1932. 1)는 방탕한 생활로 성병을 얻어 생식력을 잃은 남자의 비극적 이야기를 서사화한 작품이기도 하다.

82) 김동인의 소설 <약한 자의 슬픔>(1919)에는 곱탈을 당한 여성이 임신이 되어, 낙태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은 잘 나타나 있다.

83) 개화기 시절에는 폐병도 잠자리를 같이 할 경우 부부간이나 자녀에게도 ‘유전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폐병환자가 사회적으로 격리된 적이 있다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에 대한 규율권력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17집(2005), 34 쪽

성병을 둘러싼 이러한 담론적 현상들은 국가가 역사의 뒤편으로 자취를 감춘 후, 공론의 장이 개체의 이야기로 사소해질 대로 사소해졌음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애국계몽기에 꿈꾸었던 국가나 민족적 차원의 개혁이 한일합방으로 무산되자,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도야나 개성의 발견이 강조되는 일련의 담론들이 등장한다. 이는 외형상 개별화의 차원을 문제 삼지만, 제국적 차원에서의 개인통제와 동원체제 구축 등 전체화의 차원에 대해 묵인하는 성격도 갖는다. 성병담론은 식민지 여성의 몸을 옥죄는 개별화의 차원인 동시에, 일본국민의 건강관리와 식민지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제국군대의 군사력 강화라는 국가적 차원을 동시에 포획하며, 자본주의라는 외피를 쓴 우생학과 사회진화론이라는 근대적 사상체계의 구축이라는 강력한 전체화의 맥락을 갖는다. 민족의 부흥과 국권의 회복을 미래에 소망해 볼 수 밖에 없던 조선인에게 불결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기 조차한 질병이 ‘후대로 유전된다’는 언명은 여성들에게 위협을 넘어 일종의 형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성병담론은 아서구(亞西歐)로서 일제가 근대 서구 문명을 한반도에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서 전통과 민족의 상징인 조선여성의 몸과 마음에 일제의 문명적 우월성을 각인시키면서 내부적 규율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욕망을 무화시켜 그 주체성을 위축시키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감염경로는 방치, 약물치료만 강조하는 성병담론

성병예방의 기초는 무분별한 성적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설령 다른 일이 있더라도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는 것이 성병의 예방법이다. 사후 조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약물치료이다. 임질 및 매독의 치료제 광고는 일간지의 단골메뉴였다.⁸⁴⁾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성병치료제는, ‘살바르산’과 ‘부리온 銀(은) 겐고루,’ ‘베루쓰丸(ベルッ丸),’ ‘아지아丸,’ ‘命之母,’ ‘임질구로벨,’ ‘은

84) 예를 들어 「梅毒과 淋疾에 대한 藥廣告」, 《조선일보》, 1926. 12. 24; 「婦人病問答 問 임질로하야생진부인병에는 얼마동안이나약을쓰고 치료하면근치됩니까? 答 이치료법을 꾸준히계속하면 반드시근치하고귀여운애기도나실수있습니다」, 《조선일보》, 1938. 11. 06; 「婦人病·不妊症에 命之母」, 《조선일보》, 1938. 11. 06 등이 있다

계랍' 등이다.⁸⁵⁾ 당시 성병치료제는 주로 우편주문에 의해 판매되었다. 약값은 1938년 당시 임질치료제 한제가 7~8 원선, 완고용벌품이 13 원선에 송료가 각 육십 오전 정도로 별도 부담이었다. 매독치료제의 경우는 약제 한제 10 원선, 완고용벌 품이 30원선, 송료는 여전히 육십 오전이였다.⁸⁶⁾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일>(1934)에 의하면, 당시 인체의 신비에 대한 화보집이 일원 정도였고 채만식의 <탁류>(1937~8)에 의하면, 당시 의사의 월급이 사십원, 약국에 근무하는 사람의 월급이 20원 정도였다. 약간의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당시 임질이나 매독의 복용약 과 연고류가 합해서 약 25원~40원 안팎이었으니, 매우 비쌌다고 할 수 있다. 약 한두 제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성병감염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무척 컸 을 것이다. 비싼 가격 탓에 가짜 성병치료제를 만들어 싼 값에 파는 사기꾼까지 등장하였다.⁸⁷⁾ 임질에 관한 유행약들이 속출하니, 환자들은 속지 말라는 경고성 기사도 일간지에 게재되었다.⁸⁸⁾ 성병은 신약 가격이 만만치 않고, 치료에 오랜 시 간이 걸리며,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었다.⁸⁹⁾

85) 《조선일보》의 <大衆醫學>欄이나 <癩病報告>欄 등에는 성병치료제와 화장품, 두발치료제 등 약 품 광고가 주로 게재되었다.

86) 「남편에게 매독기운이잇으면 부인께꼭전염되야 무서운해독을자손께주게됩니다. 《조선일보》, 1938. 2. 20/조간 4면. 또다른 약광고에서는 명지모와 오기나球的 경우, 약값은 한달분 기준으로 두 가지 모두를 구입하는 경우 약 8원 가량이며 「婦人病問答 問 임질로하야생긴부인병에는 얼마 동안이나약을쓰고 치료하면근치되니까?·答 이치료법을 꾸준히계속하면 반드시근치고귀여운애 기도나실수잇습니다, 《조선일보》, 1938. 11. 6/조간 2면. 브라운銀겐고루 1호와 2호(남성), 여성은 3호를 부부가 함께 복용할 경우, 보급가가 십칠일분에 삼원팔십전이었다(「임질 남편에게 임질기운이 잇으면 반듯이 부인께 전염됩니다, 《조선일보》, 1937. 11. 26/석간 25) 또 “梅毒 과 體毒, 便秘와 부름에 베루쓰차”이라는 약광고에서는 鈴木日本製藥社의 베루쓰차(suzuki nippon-seiyakusha)은 20일분에 3원, 35일분에 5원이며(「可恐할 梅毒-初期에加療하라, 梅毒은子 子孫孫에게遺傳한다, 《조선일보》, 1937. 10. 30/석간 23면) 毛脫性梅毒의 치료약은 17일분이 6~8원, 30일분 14원이었다(「淋疾-淋疾은根治식혀라-웨淋疾은잘안났는가, 《조선일보》, 1937. 10. 30/석간 23면). 매독 가운데 남자의 불임증을 유발하는 매독성류마티스 치료제는 8일분이 4 원~8원, 16일분은 15원선이었다.

87) 「임질약 사기범 大邱署서 엄탐 중, 《조선일보》, 1937. 10. 12/ 석간12 면

88) 「임질신약, 유행약 속출에 주의, 《조선일보》, 1937. 10. 30/ 석간 23 면

89) 매독의 치료제인 살바르산은 1910년에 파울 에를리히(Paul Ehrlich) 와 그의 일본인 조수 사하치 로 하타(Sahachiro Hata)가 606번째 실험에서 살바르산(Salvarsan)이라 부른 비소계 화합물질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에를리히는 과상풍균을 죽이면서도 인체에 해가 거의 없는 네오살바르산 을 개발했다. 이것이 당시 매독치료제로 사용되었다. 매독에도 임질에도 모두 효과적인 약의 개

사정이 이러함에도 성병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책은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들은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의주부 마전동(압록강 주변)의 한 제지회사에서 흘러나온 공업용수, 즉, 원목을 용해시키기 위해 유황과 양잿물 기타 의약품이 함유된 용수가 임질, 매독, 피부병에 좋다고 소문이 나 성병환자들이 몰려오자, 위생과가 풍기상으로 방임할 수 없어 단속을 펼치기도 하였다.⁹⁰⁾ 성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 수은을 복용하다 중독되어 고통을 받거나 사망에 이른 사건들도 보도된다.⁹¹⁾ 심지어는 평양에서 매독치료를 위해 두개골을 절취하여 그것을 제분하여 음용한 사람도 있었다.⁹²⁾ 매독의 치료가 어려워 방화를 저질러 자살하는 청년과⁹³⁾ 매독아를 출산한 산모가 이혼을 당한 기사도 있다.⁹⁴⁾ 기생이 성병을 자신에게 옮긴 손님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건 유형은 가정부인들이 성병감염을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치료가 어렵게 되자 이를 비판하여 자살하는 경우였다.

여성에게 성병치료를 독려하면서도 그것이 여성의 건강 때문이 아님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東京田谷泌尿科病院長 田谷利男라는 일본인 의사가 쓴 글에는 “非常時에 적당한 튼튼한 일군이 되자”는 구호와 함께 임질을 못 고치면 “국민건기를 해치고 생존경쟁에 지게 된다”며 임질치료에 적극 나서자고 말한다.⁹⁵⁾ “부부 협력하여 곳치자!” 하루바삐 적당한 치료법으로 임질을 고치어 “이

받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이나 가능하였다. 사실상 서구에서조차도 임질과 매독 모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1945년 이후에 개발되었다. 번별로, 보니 별로, 「의학과 섹스와 여성」, 앞의 책, 353~354쪽.

- 90) 「鴨綠江 畔製紙 工場 下水道溝에 治病騒動 性病皮膚病에 藥效神妙타고 用水는 分析試驗中」, 《조선일보》, 1933. 8. 29.
- 91) 「수은 治療하다 二名이 死亡. 梅毒 고치다가」, 《조선일보》, 1934. 7. 21/ 조간2 면 「水銀中毒으로 一家三人危篤-梅毒 고친다고水銀을피워一般의 主意가必要」, 《조선일보》, 1933. 1. 26/ 조간3 면
- 92) 「梅毒고친다고 頭蓋骨截取-그리하이製粉하야飲用-迷信이 나은 犯罪」, 《조선일보》, 1932. 6. 26/ 조간 3면.
- 93) 「梅毒青年 火災로 自殺」, 《조선일보》, 1932. 5. 5/석간 23면.
- 94) 「幸福と 不幸の 岐路-매독이 원인으로 不妊症과 流産 매독아를 출산한 산모의 이혼문제사실까지 있었다」, 《조선일보》, 1937. 3. 9/석간 24면.
- 95) 「婦人病問答-問: 임질로 하여 생긴 부인병에는 얼마동안이나 약을 쓰고 치료하면 근치됩니까?-답: 이 치료법을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근치하고 귀여운애기도 나실수있습니다」, 《조선일보》, 1938. 11. 6/조간2 면

시세에 맞당한 튼튼한 일군이 되자”고 당부한다. 성진의 총후로서 튼튼한 일군이 되거나, 튼튼한 일군을 생산하기 위해 조선의 여성들은 성병을 치료해야 한다. 남편은 ‘브라운銀겐고루’ 1호와 2호를, 부인들은 3호를 엄중한 조섭과 더불어 처치하여야 한다. 성병을 방치하면 ‘정신병자’나 ‘변질자’가 된다고 겁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可憐할 梅毒 初期에 加療하라, 梅毒은 子子孫孫에게 遺傳한다」는 기사는 어머니의 매독이 자손에게 유전되어 태어나 신생아의 죽음을 재촉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성병퇴치에 힘쓰라고 설파한다. 여성이 너무 마르거나 말라도 아기를 가질 수 없지만, 성병에 걸려도 임신을 할 수 없다고 하고,⁹⁶⁾ 감염된 여성이 출산하면 그 아이는 실명을 하기도 한다고 선전한다. 「젊은 사나이 性病을 操心하라 男便한테서 惡疾 傳染되어 그 안해가 飲毒自殺」은 남편에게서 임질이 옮겨 치료하던 중 낫지를 앓자 비판하여 자살한 젊은 부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기사는 어린 딸이 어머니를 찾고 있는 장면을 상세히 서술하여 병을 옮긴 남편보다 부인의 자살을 가정비극의 원인으로 부각시키고 있다.⁹⁷⁾

사건기사의 끝은 대부분 약품광고로 이어진다.⁹⁸⁾ 선천성 매독은 전생의 죄가 차생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불교의 원리와 같이 부모의 질병이 후대의 비극을 예고한다면서 ‘아지아치’를 광고한다. 매독은 조기진찰과 내복약의 복용이 필요한데 이 신묘한 약을 먹고 아이를 낳으면 성병감염자도 건강한 후손을 볼 수 있다고 선전한다.⁹⁹⁾ 탈의한 여성의 상체와 안면 허부가 발진상태인 사진을 게재하고 毛脫性梅毒 치료제를 광고하기도 한다. ‘베루쓰丸(ベルツ丸)’의 광고에 따르면, 이는 거의 만병통치제이다. 이 약은 체독을 배설케 하고 혈액과 임파액도 정화한다. 두통과 피로도 없어진다. 일반의 매독, 체독, 창독, 횡경막염, 뇌매독, 유전매독, 여드름 부름, 동맥경화, 류마티스, 변비 등 모든 매독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 약을 상비약으로 구입하라고 권한다.

96) 「너무마르거나 너무살찌도 애기를 못낳게돼요-성병도 잇나업나 진단을 바더볼것, 《조선일보》 1940. 5. 8/조간 3면

97) 《조선일보》, 1936. 9. 18/조간 2면

98) 본 연구는 일제하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연구한 것이 아니다. 당시에는 기사나 사설 가운데 그 끝머리에 광고를 곁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이런 류의 글을 다룬 것이다.

99) 《조선일보》, 1935. 9. 10/석간 23면; 《조선일보》, 1939. 2. 24; 2.28/조간 2면 2회; 《조선일보》, 1937. 10. 30/석간 23면

성병담론은 식민자로서 일본 대 피식민자 조선여성이라는 지배(가해)-피지배(피해) 구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층위의 문제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가정부인에게 ‘몹쓸 병’을 안겨준 가부장제적 의식에 젖은 남성들은 유전성을 운운하여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서구적 근대의술은 ‘비싼 약값’을 물려 가정경제마저도 파탄으로 내몰다. 성병의 피해는 당시 가정부인뿐 아니라 기생을 포함한 조선의 기층여성 모두에게 해당한다. 왜냐하면 조선의 기생들은 ‘전차금제’에 의해 팔려와 매매음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찰국이 시행한 기생들에 대한 觸診式 성병검사는 조선의 어린 창기들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심어주어, 많은 기생들이 성병검사를 피해 낙향하거나 도망을 갔다는 기사도 이들의 매매음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조선인 창기는 성병에 걸려도 일본인 창기보다 치료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는 체신국의 의료보험가입자 가운데 건강검진에 임한 조선인 창기의 연(年)인원수가 일본 창기에 비해 훨씬 적었음에서 알 수 있다. 간혹 성병으로 병원에 간다 해도 당시 産科 의사의 대다수가 일본인이어서 유교적 문화 속에 살아온 조선여성에게 치료 자체가 큰 부담이었을 것은 뻔하다.¹⁰⁰⁾

한마디로 일제시대 조선의 여성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병이라는 심신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위생경찰체제는 공중보건의 保持增進에 해가 되는 행위들을 범죄시하여 경찰의 통제하에 두었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창기나 기생을 비정상인, 질병의 매개자로 보는 인식을 유포시키고, 성병에 감염된 가정부인들은 자손에게 유전병을 물려주는 죄인의 이미지 속에 가두어, 이들 모두를 격리의 대상으로 분류시킨다. 조선의 기층여성 가운데 기생집단과 가정부인들은 성병이란 매개를 통해 서로의 이질성을 침묵하게 대립시켜갈 수 있었지만, 이들은 가부장제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전방위적 시선에 의해 불결과 전근대, 격리와 죄인의 이미지 속에 함께 묶여 끊임없는 계몽과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 타자화된다. 식민지 국가 내 성병담론이 여성과 맺는 관계의 특수성은 바로 이것이다.

100) 김유정의 소설 <맹벌>(1937)에는 당시 병원의 진찰풍경이 나오는데 조선인 환자와 일본인 의사 사이에 통번인이 통역을 해준다.

V. 부재(不在)하는 성병예방법과 피임법, 부재(不在)하는 여권(女權)

성병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여 성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피임기구의 개발과 보급은 필수적이다. 피임기구의 개발과 보급은 성과 임신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성생활에 자유롭고도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한다. 콘돔을 비롯한 피임법의 개발과 보급은 여성의 성적 활동에 능동성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춘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 성병의 완전한 근절에는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전면적인 과학의 진보, 종교적인 구속력의 약화, 법률적 측면에서의 여성해방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¹⁰¹⁾ 일제시대 당시 피임기구의 개발과 보급은 성병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에 수록된 여성관련 담론 가운데 피임법에 대한 안내는 거의 없다. 피임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지식인 여성들이 아무리 자유연애를 부르짖고, 민족 지식인들이 아무리 여성교육을 주창해도 가장 구체적이며 일상적인 생활부분에서 여권의 옹호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욕은 주체의 욕망을 대표하는데, 욕망하지 않는 개체, 혹은 욕망할 수 없는 개체는 근대적인 주체일 수 없고, 피임법의 부재는 여성의 성욕을 무화시키고, 성으로 대표되는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수동적 존재로 격하시키기 때문이다.

피임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사는 총 6건이다. 동경산아제한평론사가 간행한 <산아제한>이란 책자를 소개하는 기사를 제외하면, 피임과 관련된 기사들은 구미의 피임법 논란을 소개하는 것들이 전부다.¹⁰²⁾ 《조선일보》에 콘돔사용에 관한

101) 변별로, 보니 별로, 앞의 책, 440쪽.

102) 「피임의 연구(전3회)(1)緒言, 受胎制限의 論點, 《조선일보》, 1921. 12. 14은 ‘도마스 말사쓰의 人口論을 거론하면서 산아제한을 위한 수태제한은 이미 구미의 실제문제라 전제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制慾을 주로 하고 晩婚과 夫婦自制” 등 금욕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방법인 바, 희랍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언을 들어 낙태의 제한보다는 수태의 제한이 바람직하데, 이를 위해 남성은 17세, 여성은 18세 이상에게만 결혼을 허락하고 산아의 수도 제한하며, 그 이상의 자녀가 회임되면 낙태를 하도록 한다고 전한다. 영국은 19세기 중반까지 수태제한법의 제창은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말사쓰의 인구론이 제시된 후 ‘新말사쓰同盟會 가 조직되고 나서는 수태제한의 주장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피임의 연구(전3회)(3)美國의 避妊運動」에서는 피임을 문화

안내는 일제시대 전기간 동안 딱 한번 등장한다. 24세의 ‘유급종사자 인 여성이 현재 육아로 고통을 겪고 있어 향후 6~7년간 피임하고 싶다며 그 방법을 문의하자 대학병원산부인과 의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콘돔이 언급된다.¹⁰³⁾ 당시에는 피임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걸리는 일이 아니냐고 경찰국에 문의해 오는 중년 가정부인도 많았다.¹⁰⁴⁾ 남편이 첩을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부인이 피임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당시 일반인의 의식수준이었다. 문제는 《조선일보》와 같은 일간지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계몽을 시도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남편의 성병 감염사실을 알았을 때조차도 콘돔과 같은 기구의 사용을 알지 못하는 부인들은 본인의 감염을 막을 도리도 없고, 성병이 유전병으로 알려졌지만 피임법을 몰라 임신을 피할 방법도 몰랐다. 오히려 당시 여성들은 피임을 죄악시하여 성병환자이면서도 임신을 했고, 아이에게 치욕스런 병을 대물림하는 어머니로 낙인찍혀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받거나, 그보다 더 치명적인 내부적인 자기검열의 탓에 걸려 죽음을 택하기도 했다.

피임법의 부재(不在)는 여권의 부재(不在)를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욕을

의 산물로 보는 미국의 ‘마가렛트 썬가 여사가 가난 중에도 많은 아이를 낳아 육아로 고통 받고 있는 미국 여성들의 피임을 도와주고 상담해 주던 중 관헌의 압박으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여사가 집필한 잡지 “부인반역자”가 발매금지당하고 여사가 투옥된 사건을 소개한다. 썬가여사는 출소 이후, 출산제한동맹의 총지휘자가 되어 수태제한 운동을 전개하여 부인에게에 신기운을 전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조차도 50여개 주가 여성에게 피임지식을 보급한 것은 1965년 이후부터이며, 대다수의 미국 여성이 피임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을 훨씬 넘어서 었다(번벌로, 보니 벌로, 앞의 책, 387쪽). 한편, 「피임국 프랑스에서 찾아기에 상금」, 《조선일보》, 1939. 8. 20 이란 기사는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프랑스가 임신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한 각종 방법과 정책을 소개한다. 프랑스는 피임약 판매와 피임법 보급을 불법화하고,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하면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며, 자녀양육보조금을 지불하고, 자금 대출시 특혜를 주는 법을 제정하였다.

- 103) 답변을 맡은 의사는 ‘오기노’씨 학설을 소개하면서 배란주기를 이용한 피임법을 설명한다 이어 ‘콘돔’과 국부세척액 사용을 추천한다. 의사는 복용하는 피임약은 따로 없다며 위에서 제시한 모든 방법의 병행을 권한다. 「가정의학 피임하고싶다」, 《조선일보》, 1936. 10. 7/ 석간24면
- 104) 「(1)침둔 남편을 어찌하리까? (2)집세를 어떻게 하면 반소? (3)피임을 하면 법에 걸리지 안소? 경찰 안내소에 반영된 세태는 경찰 안내소에서 사법·보안·위생 등에 관한 시민들의 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에는 복지와 만주에 갈 수속을 물으러 오는 이는 많이 줄었으나, 아이가 다섯이나 되고 먹고살기가 어려워 피임을 하고자 하는데, 피임이 불법이 아닌지, 물으러 오는 부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38. 12. 3.

남성의 전유물화하여 여성이 자기 몸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행위와 미래를 선택하고 향유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기생이나 부인들의 건강과 권익문제는 언제나 빠져 있는 성병담론의 양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시기 기생 혹은 매춘부는 악인이 아니라, 병든 존재, 비정상적인 존재의 이미지가 짙었고, ‘유전병’의 족쇄를 채운 가정부인들 역시 성병으로 인한 황군총후의 약체화나 민족의 미래인 2세의 안위와 가정의 붕괴에 대한 책임만이 지워진 존재였을 뿐이었다. 기생과 가정부인에게 서로 다른 규범이 적용되었으나, 어느 쪽의 여성도 성에 있어서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근대적이고 서구적인 의료상식이 일간지를 통해 보급되었으나 기층여성들의 실질적인 권위는 보장되지 않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근대적 의료체제가 작동되었지만, 여성들은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병담론은 조선의 기층여성을 탈성화(脫性化)된 존재로 취급하는 논의였다.

VI. 결론: 여성의 몸에 새긴 전(前)근대적 의식의 횡포와 근대적 의학체계의 힘

성병은 일제시대 내내 두 번째로 환자수가 많은 민족적 전염병이었다. 일제하 성병의 만연은 세균이라는 외부의 병원(病原)이 조선의 가장 은밀한 부위, 즉 여성과 가정과 일상생활 속에까지 침범해 들어옴에 대한 일종의 은유라 할 수 있다. 성병은 공포에 가득 찬 질병이자, 오염의 메타포가 강해, 감염자에게 고통 이전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일제 강점기하 매독은 대부분 자신이 매독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보균자를 통해, 뜻밖의 사람에게 ‘전달 되거나’ ‘옮겨지는’ 잔인한 선물이었다. 가정부인도 예기치 않게 성병에 걸리면, ‘방탕,’ ‘침입,’ ‘오염,’ ‘불결’의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감염자에게 치료의 소극성을 낳는다. 성병담론은 감염경로의 차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서구적 의약체계의 산물인 치료제 구매를 중용하는 논리 일색이어서, ‘몸쓸 병을 안겨 주고 ‘비싼 약값’마저 요구하는 식이다. 이는 제국주의적 국가권력과 가부장제적 사회인식, 근대적 의학체제의 횡포가 개인의 몸을 강탈하고, 거기에 근대적 규율체제를 각인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성병은 가부장제에 길들여진 남성의 욕망

과 여성들의 억압적 현실이 응집된 부위의 문제 상황이므로, 그것을 둘러싼 담론에는 성별 이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데, 이들에게서 여성의 존재감이 극히 미미하다. 일제시대 상위담론에서 여성선각자인 신여성들이 아무리 자유연애를 부르짖고, 민족주의적 지성인들이 여성교육론을 강조해도, 성병을 둘러싼 생활담론에 있어서 피해자인 기층여성에게 가해자인 양, 수치심과 죄의식 책임론과 치료의무 그 모두를 떠넘기는 논리가 횡행한다.

일제하 《조선일보》에 수록된 성병관련 담론은 독자층을 여성으로 상정한 것이 많고, 내용은 성병의 위험성, 특히 태아에게 유전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에게 성병의 확산을 막고 치료에 힘쓸 것을 강조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성병을 둘러싼 일간지의 논의는 총독부나 경찰국의 성병퇴치를 위한 활동보고성 기사 이외에는 성병치료제 소개와 성병을 방치했을 때의 위험을 알리는 데 치중해 있다. 성병으로 인한 가정파탄이나 자살 방화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사건에 대한 보도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일간지의 성병담론은 식민지인의 심신에 성병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 터전 위에 근대적 의학체제의 힘과 권위를 각인시키며, 아서구인 일제국의 식민지 의료관리 체계와 문명의 우월성을 각인시킨다. 성병을 ‘문명병’이며, ‘화류병’이자 ‘유전병’, ‘불치병’이라는 인식의 유포는 성병감염원에 대한 통제나 단속, 죄의식 부여는 뒷전이고, 죄 없이 질병을 떠안게 된 조선의 기층여성들에게 풍기문란에 따른 사회적 질타와 민족의 장래에 먹구름을 드리운 민족의 죄인이라는 이미지까지 덧씌워 결국 자기내부적 검열을 통과할 수 없게 하여 죽음으로 내몬다. 성병담론은 조선의 기층여성 내부를 기생집단과 가정부인이라는 두 개 계층으로 성층화시켜 서로의 이질성을 첨예하게 대립시키지만, 이들은 모두 가부장제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전방위적 시선에 의해 불결과 전근대, 격리와 죄인의 이미지 속에 함께 묶여 끊임없는 계몽과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 타자화된다.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성병담론은 여성의 몸에 전근대적 의식인 가부장제의 횡포와 근대적 의학체제의 힘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다. 결국 이 시기 성병담론은 기층여성을 탈성화시키고 도구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지극히 성별화된 권력담론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동아일보》, 《女性》, 《朝光》, 《매일신보》, 《新家庭》

강정숙, 「대한제국·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제도의 도입」, 『서울학 연구』 제1 권 제 호 1998, 197~237쪽.

권영아, 「근대문학 초기 여성소설 연구」, 울산대 석사논문, 1999.

김미영, 「1920~30년대 지배담론의 여성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일보》에 게재된 여성 관련 보도 성 단신기사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18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a, 285~309 쪽

김미영, 「1920년대 계몽적 남성 지식인의 여성관련 담론 연구: 《동아일보》에 게재된 여성 관련 사실 및 연재 기사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4집, 한국국학진흥원, 2004c, 277~311 쪽

김미영,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3.

김미영, 「일제하 《조선일보》의 <가당부안> 欄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 집 한국현대문학 회, 2004b, 221~278 쪽

김은희(외), 『신여성을 만나다: 근대 초기 한·중·일 여성소설 읽기』, 서울: 새미, 2004.

김정란, 「일제하 한국여성체육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4.

대한결핵협회(편), 『한국결핵사』, 서울: 대한결핵협회, 1998.

변별로, 보니 별로, 서석연·박종만(역), 『매춘의 역사』, 서울: 까치, 1992.

山下英愛,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1.

서광운, 『한국신문소설사』, 서울: 해돋이, 1993.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의료체제의 형성 1876~1910」, 서울대 박사논문, 1996.

의학신보(편), 『한국의학100년사(상·하)』, 서울: 의학출판사, 1984.

이민경,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의 부정적 유형」, 동아대 석사논문, 2005.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에 대한 규율권력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7 집 2005, 13~60 쪽

이옥진, 「여성잡지를 통해 본 여권신장: 1906년부터 1929년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0.

이재신, 「<탁류>: 성병의 은유적 도상학」, 『시학과 언어학』 제7 호, 2004, 243~261 쪽

이정우, 「폐결핵강좌1」, 『요양춘』 제3 집 1939.

전은정,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 서강대 석사논문, 2000.

정홍자,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6.

조규익, 『로터스 버드Lotus Bud』, 서울: 월인, 2004.

조은·윤택림, 「일제하 ‘신여성’ 과 가부장제 근대성과 여성성에 대한 식민담론의 재조명」,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제8집, 광복50주년 기념사업회, 1995.

조형근,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김진균·정근식(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1997. 170~221쪽.

조혜현, 「한일 근대 <신여성> 비교 연구: 여성지 《신여자》와 《청담》을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논문, 2004.

황수진, 「한국 근대소설 속에 나타난 신여성상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1999.

후지메 유키, 김경자·윤경원(역), 『성의 역사학』. 서울: 삼인, 2004.

M. 마페졸리, H.르페브르(외),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편),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일제하 《조선일보》(1920~1940)에 수록된 성병과 관련된 담론들을 분석하여, 성(性)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제하 기층여성들의 현실을 고찰하고, 그것에 반영된 당대 여성인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성병은 일제시대 민족적 질병이며, 치료법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난치병으로서 이에 대한 담론은 당시 보편적인 성별인식을 일상생활 면에서 가감없이 보여준다. 《조선일보》의 성병담론은 주로 여성을 독자층으로 하는 지면에 게재되었고, 한글로 표현되었으며 예방법보다는 치료제광고나, 성병의 방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화류병’, ‘유전병’, ‘문명병’의 이름으로 불린 성병에 대한 《조선일보》의 담론은 피해자에 가까운 기층여성을 가해자인 양, 그들에게 성병확산과 치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논의로 채워져 있다. 성병담론은 기생이나 가정부인이 한반도 내부에서 이질적인 계층인 듯 몰아가지만, 이들은 모두 가부장제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시선에 의해 계몽과 통제의 대상으로 타자화되고 탈성화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성병담론은 일제의 근대적 의료체제와 규율화 방식, 사회진화론에 토대한 근대적 사상체계까지를 가장 비정치적인 여성의 몸에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일제가 조선의 기층여성들을 ‘위축된’ 근대적 주체로 포섭해 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 투고일 : 2006. 4. 7.

● 심사완료일 : 2006. 5. 29.

● 주제어(keyword) : 성병(veneral diseases), 기층여성(substructure women),
의료화(medicalization), 가부장제(patriarchism), 제국주의적
시선(imperialistic eyes)